

# 무안군, 2022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시

## 모집공고 통해 총 91명 사업 참여자 선발 공공 근로 76명·지역공동체 일자리 15명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공공 근로사업 참여자 근무를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추진되며, 군은 모집공고를 통해 총 91명의 사업 참여자를 선발했다.

이중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76명으로 공공기관 지원업무, 꽃길 가꾸기, 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52개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는 15명으로 이동센터 학습지원, 향토전통 기술사업 등 6개 사업에 참여한다.

조수정 미래성장과장은 “하절기

에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폭염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고용회복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모집에서 미달된 공공 근로 2개 사업 4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2개 사업 2명에 대한 추가 모집은 오는 8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고민재 기자



무안군은 2022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추진되며, 군은 모집공고를 통해 총 91명의 사업 참여자를 선발했다. /무안군 제공

목포시, 이동상담소 큰 호응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근 현장을 찾아가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하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동상담소에서는 정신건강·중독관리 등 각 분야의 담당자가 정신건강기관 방문을 어려워하는 시민을 위해 거주지 가까이 찾아가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했다.

특히 상동 아파트 단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불안·무기력감 등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보통 하루 평균 50명 정도가 이동상담소를 방문하는데, 이날은 80여 명이 찾았다. 정신건강 상담을 받은 시민은 “평소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는데 부담없이 검사하고 상담받으니 좋았다”고 말했다.

답답함이나 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면 목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061-276-0199) 또는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성태 기자

## “함평자연생태공원서 여름방학 보내세요”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와 함께 함평자연생태공원으로 떠나 보는 건 어떨까. 무더위도 피하고 자연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어서다.

대동면 일원에 조성돼 있는 함평자연생태공원은 멸종위기의 각종 동·식물을 보존·육성하고, 전시 관람과 생태체험이 가능한 지역 대표 관광지이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자연생태공원, 대동제생태공원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원은 저마다 다른 테마로 조성돼 있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먼저,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국내 최대 양서·파충류 전문 전시관으로, 이곳에서는 구렁이, 까치살모사, 키크브라 등 300여 종의 양서파충류를 만나 볼 수 있다.

자연생태공원은 ‘멸종 위기 동식물 보존·육성’을 주제로 56만㎡ 부지에 조성돼 있다. 특히 지난 3월 자

연생태과학관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개관하며 AR(증강현실),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무더위를 식혀줄 바닥수와 울창한 낙우송 길을 따라 수변관찰데크가 조성돼 있어 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대동제생태공원에는 최근 캠핑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토캠핑장인 ‘별별캠핑’이 위치해 있다. 최고급 사양의 글램핑 5동을 비롯해 키즈카라반, 스파카라반, 가족형 카라반 20대가 운영중이다.

한편, 함평자연생태공원의 하절기(3~10월) 운영시간은 매일(월요일 정기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동절기(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 1시간 단축 운영된다.

함평자연생태공원 이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문수 기자

##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 개최

강진군은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의 대도시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한불교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에서 최근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사는 서울 종로 도심 속에 위치한 사찰로 도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찰탐방의 1번지로 불리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2

회 조계사에서 강진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간 중단된 행사를 최근 방역기준 완화에 따라 다시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강진 농수특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강진군직거래사업단(단장 안정균)이 중심이 됐다. 8개 생산조직체가 귀리쌀, 잡곡, 버섯, 김, 미역 등 40여 개 품목을 선

보였으며, 3일간 생산 농어업인이 직접 판매해 약 24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연잎과자, 작두콩차, 표고버섯, 미역 등이 인기품목으로 판매돼 강진의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실감케 했다.

송승언 농정과장은 “지속적인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통해 강진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판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신안, 분재대전 발대식 가져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사)한국분재협회(유수형)는 최근 천사섬분재공원에서 2022 대한민국 분재대전 준비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명예대회장으로 위촉된 박우량 신안군수와 분재협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오는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신안군에 소재한 ‘천사섬분재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2 대한민국 분재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분재대전에는 전국에서 예심을 통과한 200여 점의 분재와 신안군이 보유한 명품분재 100여 점, 최병철 교수 특별전이 분재공원과 저녁노을미술관에서 특별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초보자를 위한 분재 교실도 함께 진행돼 분재인의 저변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장홍근 기자

## 영암군, 저품위 무화과 시장격리 추진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영암군에서는 무화과 본격 출하 시기를 맞아 저품위 무화과에 대한 시장격리를 상호농협 DSC(삼호읍 망산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품위 무화과 시장격리(수매)지원사업은 8월8일부터 8월 말까지 상품성이 떨어진 무화과를 대상으

로 병과 수매를 통한 영암 무화과 브랜드 명성을 높이고 병과 무단투기를 방지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등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 격리된 무화과는 영암군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대불하수처리장의 미생물 원료로 쓰일 계획이다.

시장격리 참여 대상은 영암군에

거주하고 관내 농지에서 무화과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법)인으로 사업 신청은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또한, 농가별 쿼터제를 적용해 일부 농가에 편중 지원되거나 타 지역에서 생산된 무화과를 반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계획이며 지원 단가는 1kg당 1천200원으로 총사업량은 208톤이다. /이유빈 기자

가고싶은 여름도시티 **장성호 수변길**

영암빛줄기대리

수변 데크길(왼쪽)

황금빛줄기대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장성군 Jangseong